

2017년도 제7기 역사문화시민대학 자료집

제7기 역사문화 시민대학

불로 보는
역사문화,
그리고
한국인의 화(火)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2017년도

제7기 역사문화 시민대학

불로 보는 역사문화,
그리고 한국인의 화(火)

2017년 3월 29일 ~ 4월 26일 매주 수요일
문화강좌 4회, 문화탐방 1회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강좌일정

강좌일정	강 사	강의 주제
1강좌 3월 29일(수) 14:00	(광주트라우마센터장)	화(火) 그리고 트라우마
제2강좌 4월 5일(수) 14:00	박영만(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불을 찾아서-신창동 유적의 발화도구
제3강좌 4월12일(수) 14:00	엄수경(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불과 민속신앙
제4강좌 4월19일(수) 14:00	박해광(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촛불과 광장 민주주의 그리고 권력
답 사 4월26일(수) 08:40	경남 산청 문화탐방(구형왕릉, 동의보감촌, 남사예담촌, 남명유적지 등)	

.

목 차

제1강좌 : 한국인의 화(火) 그리고 트라우마	1
제2강좌 : 불을 찾아서 - 신창동 유적의 발화도구	19
제3강좌 : 불과 민속신앙	29
제4강좌 : 촛불과 광장 민주주의 그리고 권력	43

제1강좌 :

화(火) 그리고 트라우마

오 수 성

(광주트라우마센터장)

화, 화병 그리고 트라우마

오수성(광주 트라우마센터장)

화(Anger)

- 내외부적 요구 및 위협 그리고 압박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
- 투쟁 회피반응(fight or flight response)
-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화를 다루는 방식

화를 표현하는 방식

- 외적표출(Anger-Out)
비난이나 공격에 화를 사용
- 내적억제(Anger-In)
화를 경험하지만 표현하지 않음

분노성향

- 공격적 분노성향
- 수동적 분노성향
- 수동공격적 분노성향
- 투영적 공격적 분노성향

화병(hwabyung)

- 사례) 75/F

악몽에 시달림

온몸이 쭈시고 아픔

분한 마음에 잠이 안옴

가슴이 두근두근함

뜨거운 기가 올라옴

문화관련 증후군

1. 정의

- DSM-IV의 특정 진단 기준에 부합하든 혹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반복적이고 지역적으로 특수하게 나타나는 이상한 행동 양상 및 고통스러운 경험

2. 분류

- Amok, ataque de nervios, bilis and colera, boufée delirante, brain fag, dhat, falling out or blacking out, ghost sickness, hwa byung, koro latah, socura, mal de ojo, nervios, piblottoq, qi-gong psychotic reaction, rootwork, sangue dormido, shenjing shuairuo („neurasthenia“), shin-byung, spell, susto, taijin kyofusho, zar

개념

- 이 한국 민속 증후군은 글자 뜻 그대로 영어로는 “분노 증후군”으로 번역되며, 분노의 억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증상들은 불편, 피로, 공황, 압박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울한 정동, 소화불량, 식욕부진, 호흡곤란, 빈맥, 전신 동통 및 상복부에 덩이리가 있는 듯한 느낌 등이다 - DSM-IV
- 환경에 의해 유발된 분노 감정을 참는데서 시작되는데 유사한 경험이 반복 되면서 화가 누적되어 발생하는, 하나의 심인성, 반응성, 만성 신경증적 장애 - 민성길

역학

1. 유병률
 - 일반인구의 약 4~5%,
 - 정신과에 오는 신경증적 환자군 중 약 20~45%
 - DSM-IV 진단기준을 사용한 신경증적 장애인자 중 화병 단독 진단 된 경우는 약 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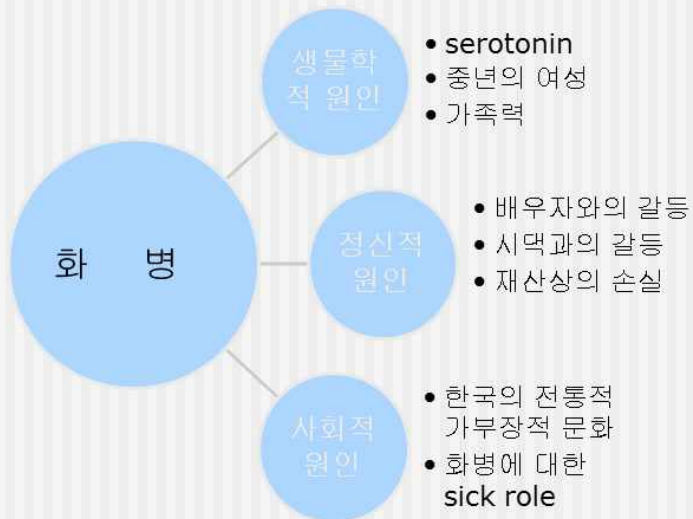
역학

2. 사회 인구학적 특징

- 고령
- 여성
- 결혼 문제
- 낮은 사회적 계층 ○ ○ ○
- 낮은 교육 수준
- 기독교인?

상대적으로 한국의 전통적 민간의 질병 개념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집단

원인



원인-정신적 원인

Table 4-1. Etiological factors described by hwabyung patients

Factors	Number of patients (N=56) (%)
Trouble with husband (or wife) (indifference, extramarital affair, alcoholism, domestic violence)	50 (89.3)
Death of husband (or wife)	4 (7.1)
Death of parents	6 (10.7)
Trouble with parents	7 (12.5)
Trouble with siblings	7 (12.5)
Trouble with family-in-law	38 (67.9)
No offsprings	3 (5.4)
Death of offsprings	2 (3.6)
Frustration with offsprings (including failure in entrance exam)	15 (26.8)
Death of or separation from friends or other close persons	9 (16.1)
Trouble with friends or other close persons	6 (10.7)
Financial loss or failure in business	25 (44.6)
Loss of job, retirement, failure in promotion	4 (7.1)
Poverty or hardship of life	24 (42.9)
Chronic physical illness in family	9 (16.1)
Chronic physical illness of patient himself	9 (16.1)
Personality problem of himself	15 (26.8)

화병의 방어기제와 대응 전략

1. 대표적 방어기제 억제(suppression)

- "참고 참다가 쌓여서"
- "나는 잘 참는 사람이다"
- "내가 손해를 본다면 본인의 감정에 대해 참고 웃을 수 있다"
-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화병의 방어기제와 대응 전략

2. 신체화 장애로 진단되기 쉽다

- 의존욕구의 좌절이 부정적 감정을 야기하고 신체화로 대치



화병의 방어기제와 대응 전략

3. 구강성(orality)

- 전통적으로 한국인에서 이유기간이 길다
- 가족유대(의존)가 강조된다
- 부모의 과잉보호가 강한 양육

4. 화병으로 인한 분노가 행동화 될 수 있다

- 충동성 행동-무모한쇼핑, 화를 냄, 물건파괴

발생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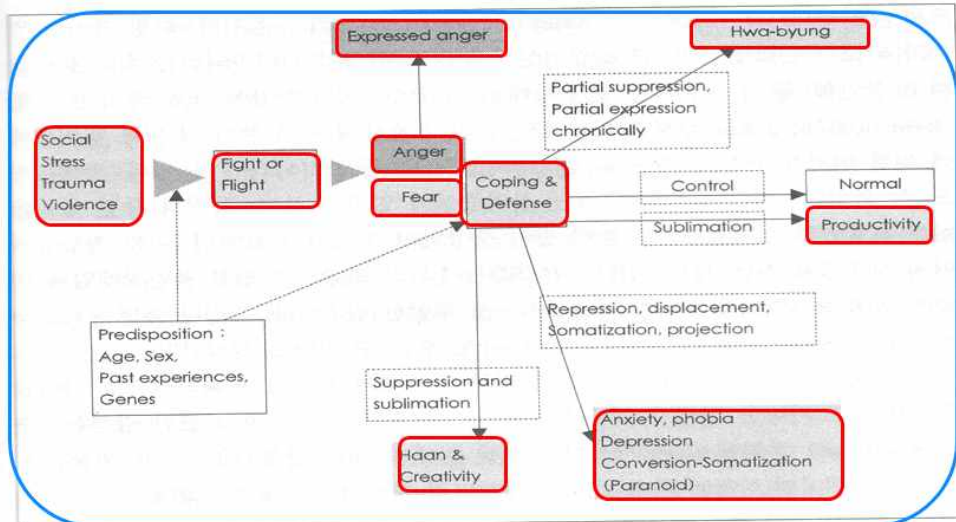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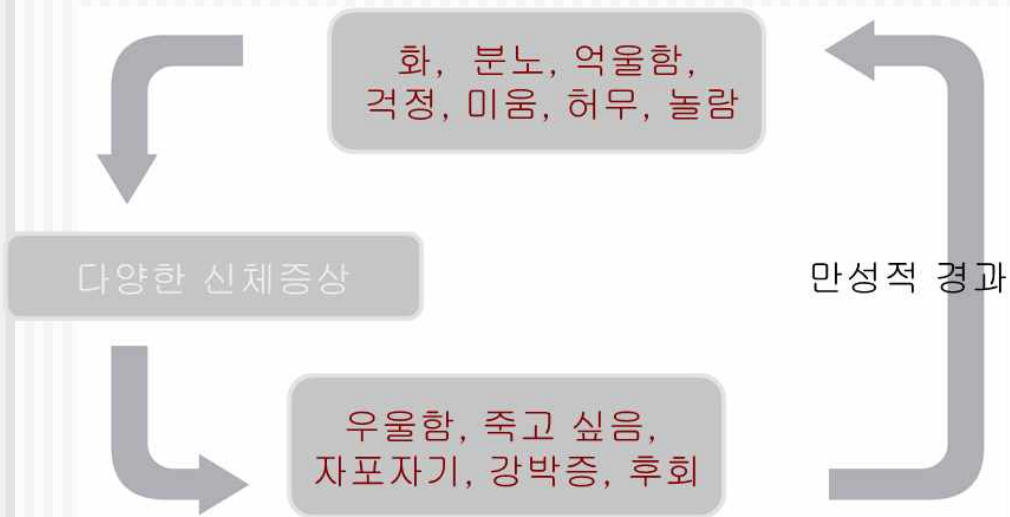


Fig. 5-1. Pathogenesis of hwa-byung, haan and other psychoneurotic disorders, and normal healthy productive behavior related to acute anger.

진행



증상-신체적 증상



<화병>

<그림. 화병의 주요 증상>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증상-핵심증상

- 화(분노), 답답함, 뛰쳐나가고 싶음, 신체 열기, 치밀어 오름, 목 가슴의 덩어리(뭉침), 신체통증, 한숨, 하소연, 피해의식, 충동성
- 미움, 억울함/분함, 진땀, 후회, 비관, 이인증, 잘 놀람, 수치감, 미움
- 화병의 핵심 증상: 억울/분, 주관적 분노, 분노표현, 열감, 치밀, 구갈, 한숨

증상-증상의 다양성과 진화

1. 중년 층의 화병

- 분노 또는 증오의 직접적 표현보다 한과 신체화 증상 호소하는 경향이 강하다
- 전통사회체제와 한방의학의 영향이 크다

2. 젊은 층의 화병

- 분노와 증오를 직접 표현하고 분노의 생리적 현상을 직접적 표현
- 급성이며 "한" 같은 문화관련 증상이 덜 뚜렷하다

트라우마 - I

✓ 객관적 측면

- 죽음, 심각한 상해, 신체적 위협과 관련된 사건에 노출되는 것

✓ 주관적 측면

- 사건에 노출된 후 두려움, 무력감, 공포감을 나타내는 것

✓ 인간외적 트라우마 : 우연적인 자연재해

✓ 대인관계적 트라우마 : 전쟁, 테러, 폭력, 고문

✓ 애착 트라우마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트라우마 - II

- ✓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한 기억(외상적 기억) ⇒ 육체적 고통 ⇒ 무의식적으로 행동에 영향
- ✓ 국가폭력 ⇒ 개인적 고통 ⇒ 트라우마
- ✓ 좌우갈등, 전쟁과 학살, 민주화 과정 ⇒ 국가폭력으로 인한 고통 ⇒ 국가 권력의 물리적 힘이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사용 ⇒ 사회적 고통
- ✓ **Post-Trauma**
트라우마 이후 격리, 감시
사회적 낙인 - 집단으로부터 배제
침묵의 공포 - 공동체로부터 소외

5•18과 트라우마 - I

- ✓ 5•18을 정치적•역사적 사건으로만 인식
- 그 사건의 당사자들이 겪은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음
- ✓ 5•18 부상자, 구속자, 유가족들의 당시의 경험은 그들의 심리적 변화를 일으킨 충격적 사건
- ✓ 5•18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줌
5월 증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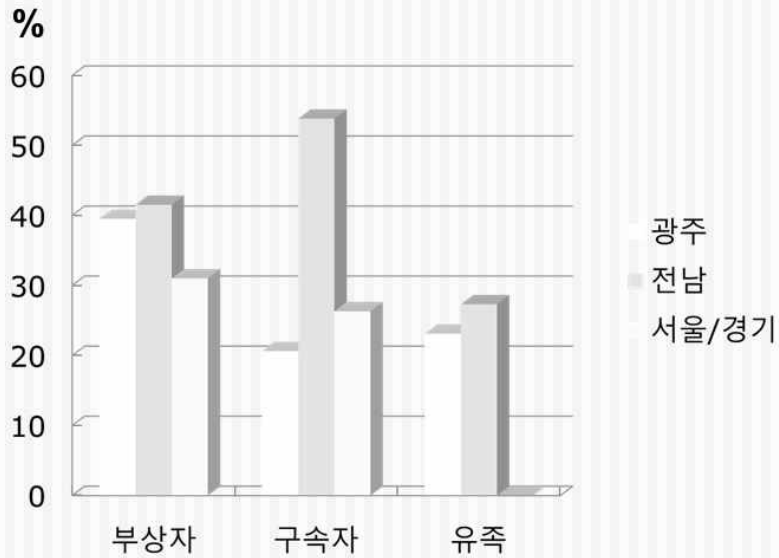
5•18과 트라우마 - II

- ✓ 5•18 피해자들은 1980년 이후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음
- ✓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함 :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
- ✓ 10일간의 단일 사건에 의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인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한 후 일어나는 특수한 정신장애
- ✓ 진단기준
 - 죽음, 심각한 상해, 신체적 위협사건을 경험했거나 목격 또는 직면한 경우
 - 극심한 공포, 무력감, 고통이 동반되거나 특정한 사건에 대한 지각이 이러한 감정들을 유발하는 경우
 - 재경험
 - 회피
 - 증가된 각성

5•18 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결론

- ✓ 많은 5•18 유공자들이 심한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25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의 충격을 현실처럼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고 재경험 하고 있음
- ✓ 고통스러운 기억의 상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만성화되고 있음
- ✓ 엄격한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응답자의 31.6%가 PTSD로 진단 가능
- ✓ 부상자 집단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총점에 따른 진단이 50.3%, 하위척도에 따른 진단이 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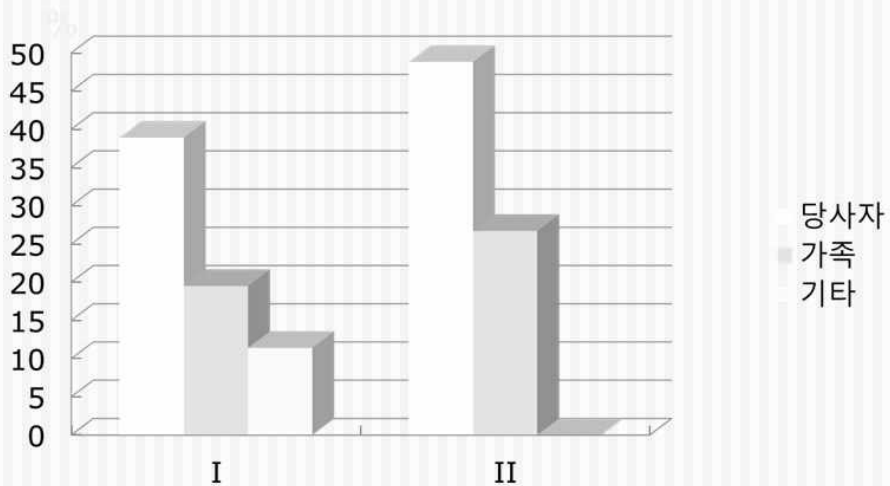
✓ 대상자 : 집단희생사건과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와 가족 (514명)

- 집단희생 사건(I)

- 국민보도연맹사건
- 군경 토벌 작전관련민간인 희생사건
- 전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 여순사건
-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
-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

- 인권침해 사건 (II)

- 공권력에 의한 사건
-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
- 의문사위원회 조사 미진한 사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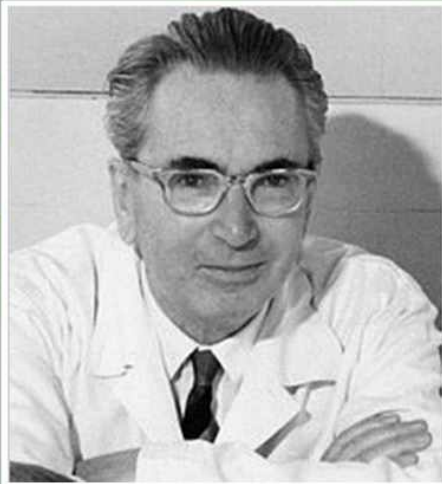
결론

- ✓ 50년이 지난 사건의 당사자나 가족들의 심리적 피해를 알아보는 조사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음
⇒ 기억해법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
- ✓ 사건 당사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진단 빈도가 상당히 높음(인권침해사건 당사자: 48.8%, 집단희생사건 당사자: 38.9%)
- ✓ 사건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 만성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이 길이 가도가도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마지막에 빛이 보이는 터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요.
"화상과 같은 인생의 고통에 좌절하고, 주저 앞으면 그 자리는 동굴일 뿐 이에요"



빅토르 에밀 프랑클(Viktor Emil Frankl)

- 1905 — 1997
- 정신과 의사
- 유대계 오스트리아인
- 나치 강제 수용소 생존
- '죽음의 수용소에서'
- 의미 치료

- 삶과 죽음의 의미
- 사랑의 의미
- 고난의 의미
- 일의 의미



오수성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전남대 심리학과 교수로 부임 1년만인 1980년 5·18를 겪은 직후부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정신적·심리적 상처를 연구했다. 90년 150여명의 임상자료에 바탕한 첫 논문을 낸 뒤 현재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높은 자살률, 심리건강과 치유 방안 등을 주제로 10여건의 연구를 진행했다. 이런 연구들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 지난해 광주에 국립트라우마센터가 설립될 수 있었다. 그는 5·18기념재단 이사, 전남대 5·18연구소장 등을 맡아 광주의 내상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5월운동'을 펼쳐왔다. 오수성 센터장은 전남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13년 정년퇴임했고, 한국임상심리학회장을 역임하였으며 2002년 심리건강연구소를 설립, 현재까지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제2강좌 :

불을 찾아서
- 신창동 유적의 발화도구

박 영 만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광주 신창동 저습지 출토 목제 발화도구

光州 新昌洞 低濕地 出土 木製 發火道具

박영만(朴永萬)*

- 차례 -

- I. 서언
- II. 신창동 유적 출토 발화도구
- III. 목제 발화도구와 발화방식
- IV. 결어

I. 서언(緒言)

신창동유적(新昌洞遺蹟)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조사된 선사시대(先史時代) 저습지(低濕地)유적이다.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토기와 더불어 목기(木器)가 주류를 점하고 있다. 이 중 목제유물에는 목검(木劍), 칠기검초(漆器劍鞘), 활[弓] 등의 무구류(武具類), 파문원형칠기(巴文圓形漆器)등의 제의구류(祭儀具類), 팽이와 자귀 등의 농공구(農工具), 사각용기(四角容器) 또는 통형칠기(筒形漆器) 등의 용기류(容器類), 문짝 등의 건축부재(建築部材), 발화구(發火具)와 신발골 등의 생활용구(生活用具) 등이 있다(그림1). 이러한 유물은 선사시대 생활문화 복원에 필요한 사실적 접근과 함께 목기(木器) 제작과정을 파악하게 하고 더 나아가 당시의 제작기술 및 그 기술체계가 결합된 농경사회의 문화상을 밝히기 위한 유용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¹⁾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량의 목제유물이 출토되는 신창동 저습지 유적의 발굴조사는 당시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목제유물의 보존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며 동시에 심도 있는 목기연구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목제유물의 용도 분류와 자연과학적 분석 등 다양한 학제간(學際間) 연구를 진행하여 그 간의 성과를 수집·정리하여 정식으로 보고한 바 있다.²⁾

*國立光州博物館

1) 趙現鐘·申相孝·張齊根, 1997, 『光州 新昌洞 低濕地 遺蹟 I』, 國立光州博物, p132.

선사시대의 목기에 대한 연구는 출토 빈도수가 잦은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상당한 수준의 연구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토되는 목제유물은 저습지와 같은 특수한 매장환경에서 출토되기 때문에 선사시대의 목기연구에 대한 접촉기회가 매우 적고 국내 연구자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수침된 상태의 목제유물에 대한 국내 연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선사시대의 목기연구는 부후(腐朽)된 목질(木質)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표면상태가 매우 빠르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처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에 연구에 필요한 샘플링, 사진 촬영 및 파손정도, 가공도구와 제작기법·성장양상·기능 등의 설명과 함께 도면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³⁾

이 글에서는 광주 신창동유적에서 출토된 다종다양한 목기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발화도구에 대한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 목기 연구의 대한 결과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창동유적 출토 발화도구를 통하여 불의 생산, 불의 용도, 불에 대한 사고방식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農工具類



漆器



生活用具



容器類

2) 趙現鐘·朴永萬, 2009, 『光州 新昌洞 低濕地遺蹟 出土 植物과 動物』, 國立光州博物館.

3) 조현중, 2008, 『보고서 작성 및 평가메뉴얼 - 목제품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p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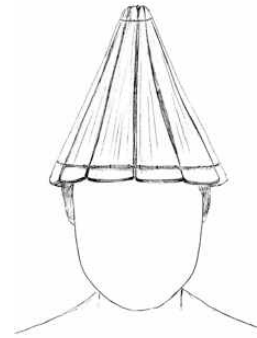
織物生産道具



중국 운남성 천짜기



고깔모자



고깔모자 착용모습

그림1. 광주 신창동유적 출토 주요유물

II. 신창동 유적 출토 발화도구(新昌洞 遺蹟 出土 發火道具)

1995년 광주 신창동유적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발화구는 불을 일으키는 도구로 발화막대와 발화대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발화막대는 비교적 단단한 참나무 혹은 다래나무의 곧은 가지를 이용하였으며 발화대는 느릅나무를 사용하여 만들었다(그림3). 이 자료는 우리나라 최초로 출토된 발화도구로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유일한 것이다. 출토된 발화대는 판재이고 상하면을 편평하게 다듬어 만들었으며 발화봉과의 마찰에 의해 검게 그을린 둥그런 홈이 여러 개 있다. 측면에는 「V」자형 홈이 나있으며 마찰열에 의해 생긴 나무의 탄화가루가 흘러내려 결국 불씨를 얻기 위한 것이다(그림2). 또한 발화막대의 보관 및 이동을 위하여 만든 발화막대 집과 소나무의 송진이 배인 관솔도 출토되었다. 관솔은 송진이 많아 불이 잘 붙고 오래 탈 수 있어 전통시대에는 물론 최근까지도 불의 보관 및 이동, 등불 등으로 사용되었다.



출토상태



발화도구 세트



발화구 사용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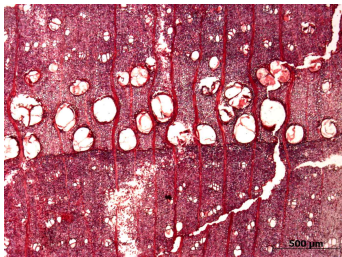


관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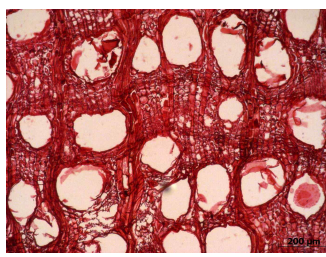


관솔의 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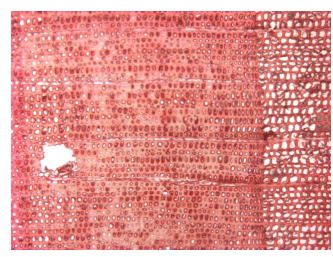
그림2. 광주 신창동유적 출토 발화도구와 관솔



느릅나무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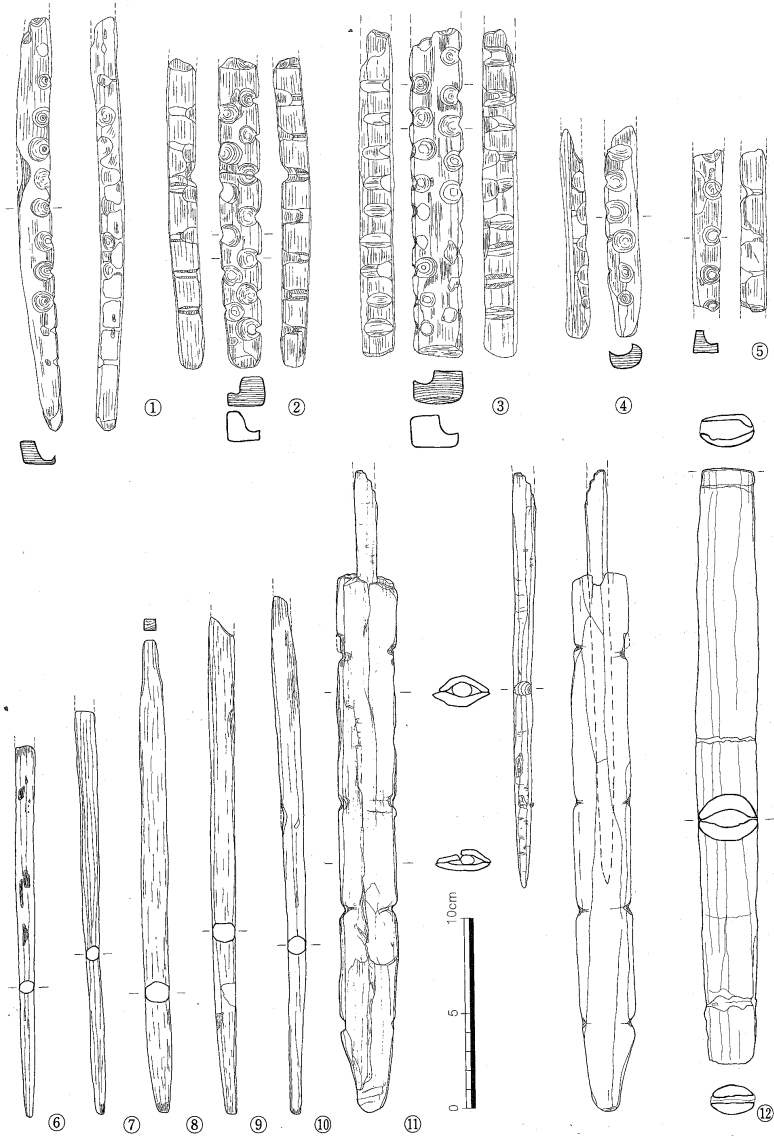


다래나무속



소나무

그림3. 발화도구와 樹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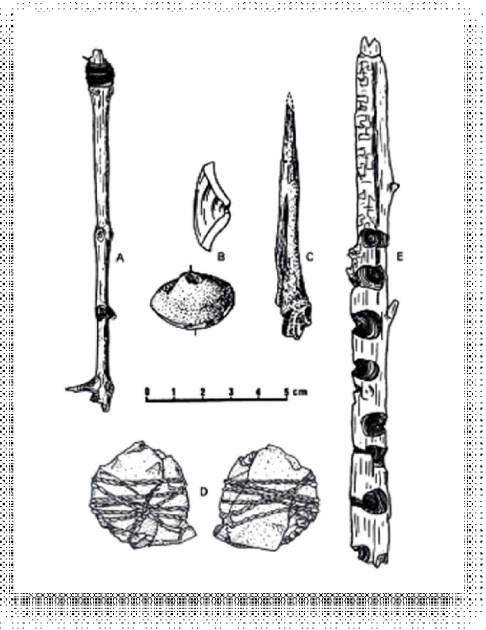


圖面25. 발화기(發火具) ① ~ ⑤ 發火臺, ⑥ ~ ⑩ 發火棒, ⑪·⑫ 發火棒·鞘

그림4. 광주 신창동유적 출토 발화도구

Ⅲ. 목제 발화도구와 발화방식(木製 發火道具와 發火方式)

발화도구는 구석기시대 이래 인간의 최대 발명품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불의 역사와 관련된 고고학적 자료는 신창동유적의 발화도구가 최초이며 가장 오래된 것이다. 발화도구와 발화방식은 세계 각 지역에 따라 수많은 방식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발화도구는 12,000년 전(후기 구석기시대) 페루의 기따레로[Guitarrero] 동굴유적에서 출토된 것이다(그림5). 발화방식에는 기본적으로 마찰방법에 따라 왕복식(往復式)과 회전식(回轉式)으로 대별된다. 왕복식은 화거법(火鋸法)과 화구법(火溝法)이 있다. 화거법은 목봉(木棒)을 나무판에 톱질하듯이 문지르는 방법이며, 화구법은 흙이 파인 나무판에 나무막대를 전후로 문지르는 방법이다. 회전식은 신창동식 발화구와 같이 회전력을 이용하여 불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일본이나 아프리카지역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⁴⁾ 회전력을 얻는 방법은 손비빔식·끈회전식·수평활비비식·수직



활비비식 등이 있다(그림6). 회전식은 양손으로 비비는 방식에서 점차 가죽끈과 같은 보조도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고 결과적으로 활비비와 같은 회전도구가 출현하는 단계로 발달한다. 신창동의 발화구는 이러한 일련의 기술적인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림5.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발화도구
페루의 기따레로 동굴 출토(12,000년전)

4) 趙現鐘, 1997, 『光州 新昌洞 低濕地 遺蹟 I』, 國立光州博物, p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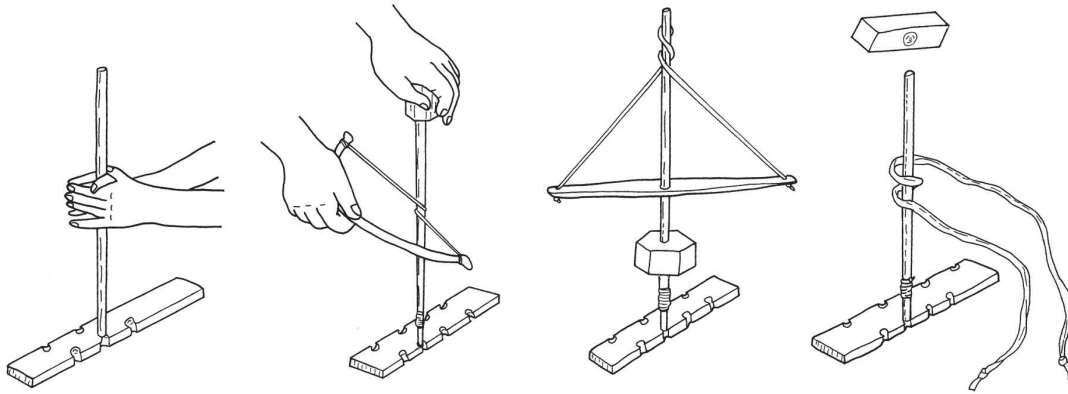


그림6. 발화구 사용법

IV. 결어(結語)

지구상의 인류는 이미 구석기시대부터 불을 사용하였다. 그 시기는 약 50만 년 전으로 추정되며, 전기 구석기시대 후반의 중국 저우커우덴[周口店] 동굴유적과 남아메리카 원더베르크[Wonderwerk] 동굴유적의 지층에서 불을 사용한 흔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불은 화산이나 낙뢰에 의한 화재 현장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생각된다. 불의 발견은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익힌 음식을 섭취하게 해주었으며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자연으로부터 어렵게 제공받은 불을 지속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방법은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였다. 인류는 환경변화에 적응함에 따라 신체적 기능과 지능이 발달되었다. 지능의 발달로 인해 인간은 스스로 불을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고 결국 불을 생산할 수 있는 도구를 발명하였고 문화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불은 선사시대부터 조명과 난방, 음식의 조리, 토기의 생산 등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화법은 나무의 마찰열을 이용하는 것에서 불쇠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변화되었고 불을 다루는 기술은 점차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고대사회에서는 고온의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제련하여 각종 철제농기구와 무기를 생산하였고 이를 통해 농업생산력을 증대시켰으며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토기의 소성온도를 높여 도자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불의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적 변화는 폭발력을 갖는 화약의 개발로

이어졌으며 드디어 에너지 자원으로서 불의 기능이 변화되었다. 18세기이후에는 석탄을 연료로 증기기관을 가동해 열차를 움직이는 증기기관차의 발명으로 산업혁명을 이끌었으며 오늘날 전기와 원자력에 이르기까지 현대 공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인류문명의 근간을 이루었던 불의 대한 믿음은 과학의 발달과 산업화에 따라 점차 소원해 졌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불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박영만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문화재와 소장품 보존처리, 문화재 복원하기 등 보존과학자로 일하고 있으며, 옥외 전시 운영 및 관리와 박물관 전시기획 큐레이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3강좌 :

불과 민속신앙

엄 수 경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불과 민속신앙

엄수경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차 례

들어가는 말

1. 불과 인류
2. 불과 민속

나오는 말

들어가는 말

민속이란 민간 생활과 관계된 생활풍습이나 습관, 신앙, 기술, 전승문화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전승문화는 한 민족이 오랜 세월을 두고 지녀온 생활문화로서 시행착오를 겪고 이루어진 것으로, 그 민족에게 가장 적합한 삶의 지혜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가고자 몸에 익힌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도 하고 후대에게 전달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적, 정신적 결과물이 바로 민속문화이다.

우리나라 민속문화에 대한 수난기를 든다면 타민족으로부터 발생하기도 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에 의해서 우리 전통문화인 민속문화가 말살 당했다. 토속신앙을 믿는 우리에게 미개하여 미신을 믿는다면 개화가 필요한 민족이라고 했다. 개화를 위해 식민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정당화한 것이다. 사실 우리의 토속신앙과 일본인들이 믿고 있는 신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민속문화와 관련해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지 못한 점이 있다. 1950년대 후반 이승만 정권이 근대의식화운동을 주창하면서 미신타파운동을 벌린 점이다. 문맹자 퇴치와 미신타파운동을 관주도아래 이루어졌다. 근대화운동에서 서양은 신식, 우리의 전통문화는 구식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우리문화를 폄하했다. 박정희 정권은 농촌 근대화 목표를 시작으로 새마을운동에서 생활환경 개선, 현대화 의식 생

산증대, 지붕을 함석이나 슬레이트로 개조, 흙담 헐고 시멘트 블록으로 길 넓히기를 하면서 마을 수호신격 신목을 베 내거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장승을 뽑아 태워버렸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가장 많은 손실을 입혔던 점으로 들 수 있다.

1980년 전두환은 군사쿠데타를 희석시키기 위해 문화정책을 썼다. 바로 국풍 81이다. 또한 3S정책을 시행했다. 스포츠, 스크린, SEX(접대문화)를 통해 문화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도 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1979년 12월 12일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후 5·18민주화운동을 탄압하여 반대 세력을 약화시킨 뒤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1980년 언론 통폐합 이후, 1979년 동양방송에서 주최했던 '제1회 전국 대학생 축제 경연대회'를 KBS로 옮기면서 제2회 행사를 추진하려 할 때, 청와대 정무1비서관 허문도 지시로 소박했던 축제가 '국풍'이라는 대규모 행사로 바뀌었다. 허문도는 김지하, 김민기, 임진택, 채희완 등을 포섭하고자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결국 자신의 모교였던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을 모아 행사에 참가토록 했다. 행사 직후 언론사 보도에서 대규모 군중집회 허용과 민족문화에 대한 자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고유문화 원형보존 노력이 부족하고, 농번기 행사로 시기 선택이 부적절했다. 규모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질서 유지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이 지적되었다. 국회에서는 대학생들 참여가 적었음이 지적되었고, 이듬해 열린 민속학자 심포지엄에서는 현장 자연민속을 파괴할 수 있는 '모조 민속'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1981년 전두환 정부는 5·18 1주년을 맞아 광주에 쏠릴 국민의 관심을 잠재우고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무언가를 준비해야만 했고, 제5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민족문화의 창달'을 앞세워 대규모 문화행사를 계획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⁵⁾

이번 강좌에서 불과 민속신앙 부분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불과 인류

1) 불과 문명 전달자

불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가?

애석하게도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주인공 프로메테우스일 것이다. 그의 이름은

5)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D%92%8D%E2%80%9981>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 이성, 지성’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 소유물인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는 단순히 불을 전해준 것이 아니다. 불은 변화와 에너지를 생산하는 물질이다. 프로메테우스는 문화 전달자인 동시에 문명자라 할 수 있다.

제우스는 불을 훔친 대가를 치르게 한다. 벌은 인간과 프로메테우스에게 동시에 내려지게 된다. 인간은 판도라를 통해 축복에 맞먹는 불행을 동시에 받았다. 프로메테우스는 카프카스 바위에 묶고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나 간은 끊임없이 다시 회복되곤 한다. 프로메테우스는 아이스킬로스의 <묶인 프로메테우스>에서 인간에게 불과 문명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생존 수단 이외의 모든 예술과 과학을 줌으로써 불과 문명을 보호하는 존재로 등장했다.

우리나라에도 불의 신화가 있다. 건국 시조인 단군에게는 부루, 부소, 부우 부여 네 아들이 있었다. 인천 강화도에는 단군의 세 아들 부우, 부루, 부여가 각각 맡아서 쌓았다는 삼랑성(정족산성)이 있다. 네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인 부소는 우리 민족에게 불을 가져다 준 주인공이다. 이런 이유에서 강화도 마니산 정상에 있는 첨성단에서는 해마다 전국체전을 위한 성화의 불씨가 채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불신으로는 흑룡과 화덕진군이 있다. 흑룡은 지하국 용암을 신격화한 것이다. 화덕진군은 화덕벼락장군이라 부르며 벼락까지 관장하는 신이었다. 천지왕 신하였으나 일을 경솔하게 처리한 바람에 벼락몽둥이, 벼락, 벼락틀까지 압수당하고 하늘에서 쫓겨나 불만 가지고 이승신이 된 것이다.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준 것이고, 우리나라 단군신화에서 부소는 불을 발명한 자로 나온다. 아주 먼 옛날 세상에 맹수와 독충이 생기고 돌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이에 부소가 부싯돌을 만들어 불을 일으켜 백성들에게 전했다. 이 불로 숲을 태워 해로운 벌레들을 없애고 돌림병을 물리쳤다고 한다. 우리가 불을 지필 때 쓰는 부싯돌이라는 말은 부소석이라 한다. 단군의 둘째 아들 부소와 관련하여 ‘부소석-부소돌 - 부싯돌’로 변한 것이라 한다.

2) 인류와 불

인류 문명은 불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처음에 불은 번개, 화산폭발, 운석 충돌, 태양열에 의한 자연 산불 등 주로 자연 발화였다. 이때 불은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보편적으로 불은 원시시대부터 신성하게 섬겨왔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전기나 가스가 없던 시절에는 불은 필수적 도구였다.

인류사에서 불의 발견은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인간은 불로 인해

맹수들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굴속에서 생활하다 지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은 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불에 음식을 익혀먹음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불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모든 음식을 날로 먹었다. 불을 사용하면서 세균으로부터 해방되고 소화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소화기능이 촉진되었다는 것은 건강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날 것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보다 음식을 익혀 먹었을 때 활동이 활발해지고 수명 또한 연장되었다.

불의 발견은 밤을 단축시켰다. 활동시간을 연장시켜준 것이다. 불이 없던 시대에는 해만 지면 활동이 정지되었다. 불이 발견되면서 낮 시간이 연장되었고 이로 인해 문명을 발달시킬 수가 있었다. 불의 발견은 인류의 생활권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불이 발견되기 전에는 온대지역으로 한정되었으나 불이 발견되면서 추위를 극복하고 추운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족 이동을 가져온 것이다. 불의 발견은 인류에게 금속문화를 가져다주었다. 각종 도구를 만들어냄으로써 문화인류는 급진적 변화가 일어났다. 철기문화는 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⁶⁾

2. 불과 민속

오늘 날 불을 얻을 수 있는 도구는 다양하다. 성냥,ライター, 가스, 전기 등이다. 발화도구가 없던 옛날에는 돌과 돌, 나무와 나무, 돌과 쇠를 부딪치거나 문질러 겨우 불씨를 얻었다. 힘들게 얻은 불씨를 잃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불을 다루는 곳은 주로 부엌이다. 부엌은 여성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결국 한 가정의 불 관리는 여성의 몫이 된다. 불씨를 꺼뜨리는 것은 여자의 수치일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소박을 맞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여성들은 불씨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불은 민속에서 정화의 의미와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 액을 막는 제액초복, 벽사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불은 정화의 물질이고 어둠을 밝혀주며 대로는 사람들에게 큰 재앙을 가져다주는 경외의 존재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생명력을, 그 파괴력은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정화의 표상이다. 전염병 예방책으로 목화씨를 문 앞에서 태우는 것은 벽사의미다. 유행성감기나 장티푸스가 발생했을 때도 목화씨를 태웠다고 한다. 깨나 목화씨를 태우는 것은 소리를 통해 잡귀를 물리치는 행위로 청각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 불 자체의 벽사의미도 보태진 것이라 하겠다.

1) 부엌과 민속

6) 박계홍, 『우리민속의 맥락과 현실의식』, 민속원, 1998, 130~131쪽.

우리 부엌에 대한 최초 기록은 3세기경 중국 사서 『삼국지』 '변진전'에 "부엌이 대체로 서쪽에 있다竈皆在戶西"는 내용이 있다. 1776년 유중림 『증보산림경제』에서는 "부엌을 서남쪽에 두면 좋지만 서북쪽에 두면 나쁘다"는 내용이 있다. 부엌을 서쪽에 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음양오행사상 때문이다. 양은 동의 방향이고 음의 방향은 서 방향이다. 조선시대 양반 가옥은 남자 공간인 사랑채나 사당은 동쪽에, 여성 공간인 안채는 서쪽에 배치했다.⁷⁾

부엌과 관련하여 5월 용날에는 돼지를 잡아 고사를 올렸고, 4월과 5월에도 이와 같이 했다. 19세기 홍석모 『동국세시기』에 "꼭두새벽에 종각 네거리 흠을 파다가 집 네 귀퉁이에 뿌리거나 부뚜막에 바르면 부자가 된다"는 기록이 있다.

부엌에서 불을 다루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부엌 문지방이나 보꼭(지붕 안쪽)에 바다 해海 자나 물 수수를 쓴 종이를 거꾸로 붙였다. 전남 순천 승주읍 선암사 공양간 부엌문에서 볼 수 있다.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때려면 불뚱이 튀기 마련이다. 불뚱을 두드리기 때문에 불뚱이 튀는데 차마 말기로 옮겨 구멍이 나면 붉은 형겅으로 꿰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잡귀가 몸속으로 들어가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임산부는 아이를 지우게 된다고 여겼다. 붉은 천에는 잡귀를 물리치는 힘이 깃들여 있다. 고살길에서 흰 치마에 붉은 형겅을 댄 아낙네와 맞닥뜨리면 침을 세 번 뱉고 돌아서 간다. 부엌 바닥에는 어린아이 주먹만 한 흠덩어리가 촘촘히 깔려 있는데 그 래야 먹을 복이 많다고 여겼다. 이사를 갈 때 이를 거둬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산림경제』에 부엌과 관련된 금기다 있다.

부엌과 우물은 마주보고 있으면 남녀가 문란해진다.

부엌이 대문과 마주거나 대청 뒤에 두면 나쁘다.

부엌과 우물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가난해진다.

무너진 부엌 위를 밟으면 부스럼을 앓게 된다.

키질을 해서 부엌으로 까불어 넣으면 집안이 불안해진다.

부엌 불로 향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새집을 짓고 집으로 들어갈 때 덕망 있는 어른이 먼저 들어가고 제일 먼저 화로를 가져간다. 화로는 불씨를 보관하는 것으로 화로 불이 꺼지는 것은 가문의 멸망을 의미한다. 화로의 불처럼 집안이 융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다. 솥 안에 요강을 넣어가는 것은 가족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솥은 밥 짓는 도구이고 요강은 배설물을 담는 도고이다. 솥 안에 요강을 넣는 뜻은 잘 먹고 배설을 잘 하라는 건강을 의미한다 하겠다.

새집들이를 할 때 1970~80년대만 해도 이삿날 집에서 쓰던 화로나 아궁이 '불

7) 김광언, 『한국의 부엌』, 대원사, 2003, 17~18쪽.

씨'를 가져갔고, 물동이도 물이 담긴 그대로 옮겼다. 이전 집에서 누리던 복이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집들이 선물로 당시 성냥과 양초가 유행한 것도 '불씨'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집을 옮기면 액운을 쫓고 복을 부르는 의식들이 행해졌는데, 이사 간 첫날 밤, 부정을 막기 위해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잠을 자는 한편, 종교적 의미로서 액운과 부정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례로 가택신에게 고사까지 지냈다.

2) 부엌 지킴이 조왕신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기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일은 가정신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 신앙이 바로 가정신앙에서 부뚜막 조왕신앙이다. 조왕신(竈王神)은 여신으로 조왕각씨, 조왕할망, 조신, 조왕대신, 부뚜막신 등 이름으로도 불리는 신이다. 본질이 화신(火神)이기 때문에 부엌에서 존재하게 되었다. 사찰에서는 조왕각을 따로 지어 탕화를 안치하여 모시거나 부엌에 탕화를 걸어 놓고 있다. 명절에 차례를 지내거나 집안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곳을 할 때에는, 성주신에게 빌듯이 조왕신에게도 조왕상을 차려 놓고 집안이 잘 되도록 해달라고 빌며 절을 했다. 새벽에 부뚜막 위에 깨끗한 물을 떠 놓고 집안의 무사함을 빌기도 했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조왕신이 주로 자녀를 지켜주는 신이라 여겨 받들었다. 조왕을 모시지 않던 집에서도 자녀가 입대하거나 먼 길을 떠날 때면 조왕을 섬기는 이들이 많아 아침마다 조왕중발에 정화수를 올리며 빌다가 자녀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면 조왕중발을 거두었던 것이다.

조왕신 신체는 부뚜막 뒷벽 가운데 작은 턱에 올려놓은 종지에 담긴 물이다. 불과 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불은 늘 물과 짝을 이룬다. 정화수를 올리는 동시에 촛불을 켜다. 이른 아침 정화수를 올리는 것은 불을 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불을 동시에 다루는 것에서 생긴 신앙이다. 오행에는 불과 물이 상생과 상극이 있다. 불과 물의 관계는 상극관계로 볼 때는 좋지 않는 관계이다. 그러나 물과 불이라고 해서 늘 그런 것은 아니다. 수화상제 염매상성(水火相濟鹽梅相成)이라 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재능이나 성품이 각각 다르나 화합하고 절충하여 같이 구제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다종다양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재능과 품성을 가지고 있다.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처럼 불과 물의 관계 역시 그러한 의미로 봐야 한다. 조왕신앙 습관은 한국불교에서 조왕신앙수용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새벽기도회가 가정주부들 새벽 조왕신앙 습관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왕신의 신체와 관련해서 지금은 보기 드문 현상이다. 문명발달과 세상변화로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집 구조의 변화로 부뚜막이 아닌 가스렌즈 뒤에 모시는 경우도 있다.

부엌에서는 금기하는 것들이 있다. 조왕신은 부뚜막 뒤쪽에 머물러 집안에서 일

어나는 온갖 사실을 날날이 적어서 하늘로 올려 보내는 임무를 맡고 있다. 여인들은 이 조왕신의 비위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하여 부인들은 날마다 금기를 정해놓고 지켜야 했다. 아녀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을 때면서 악담을 하지 말 것. 부뚜막에 걸터앉지 말 것, 함부로 발을 디디지 말고 무엇보다 부엌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했다. 이 금기를 지키려고 주부들은 날마다 이른 아침에 샘물을 길어다 주발에 떠서 부뚜막 뒷벽에 설치한 토대(土臺) 위에 올렸던 것이다. 또 명절날이나 치성굿을 할 때 목판에 떡, 과일 등 간소한 음식을 차려 부뚜막 위에 놓는다.

도교경전 <포박자(袍朴子)>에 “매월 그믐밤 조왕신이 상제에게 죄를 고해, 죄가 큰 자는 수명을 300일 감하고 가벼운 자는 3일을 감한다”고 했다. 조왕신이 하늘에 올라가 인간의 죄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민간에서는 이날 각별히 말을 조심하고 조왕신이 고자질을 하지 못하도록 부뚜막에 엿을 붙여 입을 막기도 했다. 조왕신에 대한 섬김에서 옛사람들이 신적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일상화되어 있어 스스로 종교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3) 조선시대 불 바꾸기 의례

조선시대에 행해졌던 개화(改火)라는 의례가 있었다. 개화란 불을 다시 피운다는 의미이다. 불을 다시 피워 예전에 피워두었던 불씨를 새로 바꿔주는 행위이다. 이 의례는 조선시대 궁중에서부터 각 지방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행해진 의례였다. '개화(改火)'란 일 년에 다섯 차례씩 새로운 불을 만들어 오래된 옛 불씨와 바꾸었던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화는 궁중의 각 기관과 지방 관청에서 일제히 행해졌고, 새로운 불씨는 민간인들에게까지 전달되었다.

불 바꾸기 의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일까.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질병을 예방하고 화재를 예방하고자 했던 것이다. 양의 성질 불이 오래되고 불꽃이 지나치게 강하면 양기가 너무 과해져서 음양의 조화와 균형이 깨진다고 봤다. 음양 조화와 함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불을 갈아 준 것은 정화를 상징한다고 하겠다. 불의 정화는 사악한 기운을 파괴시켜서 깨끗하게 제거시켜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불에서 나오는 빛, 연기, 재도 마찬가지로 사악한 기운을 내쫓을 수 있는 벽사상징으로 여겼던 것이다. 양 기운이 지나친 불씨는 음양 조화를 깨뜨린다고 여기고 그럴 때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불씨를 바꾸어주는 개화(改火) 의례를 하게 된 것이다.

불 바꾸기 의례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다. 일 년에 다섯 번 실시를 하는데 절기가 있다. 입춘일, 입하일, 입추일, 입동일, 토왕일이다.

개화령(改火令)을 내렸다. 예조(禮曹)에서 아뢰었다. “삼가 주례 를 상고하면,

하관(夏官) 사환(司烜)이 행화(行火)의 정령을 담당하여 사계절마다 나라의 불을 바꾸어 주어시질(時疾)을 구제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선유(先儒)는 불씨를 오래 두고 바꾸어주지 않으면, 불꽃이 빛나고 거세게 이글거려 양기(陽氣)가 정도에 지나쳐 역질(厲疾)이 생기기 때문에, 때에 따라 바꾸어 변하게 해야 한다. 그 변하게 하는 방법은 나무에 구멍을 뚫어 불을 내어 바꾸는 것이다. 느릅나무(榆)와 버드나무(柳)는 푸르기 때문에 봄에 불을 취하고, 살구나무(杏)와 대추나무(棗)는 붉기 때문에 여름에 불을 취하고, 계하(季夏)에는 토기(土氣)가 왕성하기 때문에 뽕나무(桑)와 산뽕나무(柘)의 황색 나무에서 불을 취하고, 떡갈나무(柞)와 졸참나무(櫟)는 희기 때문에 가을에 불을 취하고, 왜나무(槐)와 박달나무(檀)는 검기 때문에 겨울에 불을 취한다. 각 절기의 방위 색에 따라 불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불이라고 하는 물건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늘 쓰는 것이기에 불의 성질에 따라야 합니다. 세월이 오래되고 법이 폐지되어 불을 바꾸는 법령이 오랫동안 행해지지 아니하여, 불꽃을 다스리는 도리에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사철에 불씨를 바꾸는 령(令)을 내려, 경중(京中)에서는 병조에서, 외방(外方)에서는 수령들이 매년 사철의 입절하는 날과 계하 토왕일에 각각 그 나무를 문질러 그 철의 불씨로 바꾸게 하옵소서. 그 불씨로 음식을 삶고 익히는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음양의 원리에 따르면 역질(疫疾)의 재앙이 없어집니다. 불꽃을 조절한다면 예방이 될 것입니다.”⁸⁾

왕이 말하기를, “예천백(醴泉伯) 권중화(權仲和)가 내게 이르기를, 사철에 불씨를 바꾸는 것은 예전에 그 제도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옛 제도를 따르지 아니하여, 이 때문에 화재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하고 드디어 의정부에 명을 내려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음양의 조화에 따른 불 바꾸기 의례에서 지켜야 할 규칙

절기	입춘일	입하일	입추일	입동일	토왕일
불내는나무	버드나무 널판지	살구나무 널판지	졸참나무 널판지	박달나무 널판지	산뽕나무 널판지
대상 나무	느릅나무기 둥	대추나무 기둥	떡갈나무 기둥	왜나무 기둥	뽕나무 기둥
계절 방위 색	봄 푸른색	여름 붉은 색	가을 흰색	겨울 검은 색	중앙 황색
방위	동	남	서	북	중앙
방위동물	청룡	주작	백호	현무	황룡

8) 권용란, “조선시대 ‘개화’의례연구”, 『민속학연구』 제15회, 2004, 8~9쪽

오행기운	나무(木)	불(火)	쇠(金)	물(水)	흙(土)
공간위치	왼쪽	전	오른쪽	후	중앙
불내는 방법	비벼서 불을 만듦.	비벼서 불을 만듦	비벼서 불을 만듦	비벼서 불을 만듦	비벼서 불을 만듦

개화의례가 전국적으로 행해졌던 것은 질병예방과 화재예방을 통해 사회전반의 질서 조화와 함께 안정을 유지시키기 위함인 것이었다. 불이 가지는 정화, 벽사의 상징이 국가 제도 속에서 잘 활용되었던 점으로 볼 수 있다. 불의 주술력은 각 절기마다 불씨를 바꾸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후기에 한성에 동지, 남지, 서지와 같은 연못을 파고 물을 가둬 불이 나면 그 물로 불을 끄기도 했다. 경복궁 내에도 두 곳에 연못이 있다. 주술적인 방법으로 화재를 미리 막고자 한 것이다. 대원군은 오행상 화산에 속한 관악산을 진입하기 위해 그곳에 우물을 파고 쇠로 만든 용을 파묻었다 한다. 그것은 화산을 진압해야 한양에 화재가 없고 그 화산을 진압하기 위해 물을 지배하는 용이 필요했다. 또한 한양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광화문 앞에 해태상을 조각해 안치하기도 했다. 9)

4) 혼인의례와 불

대한민국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의 결합으로서 혼인을 중요시해왔다. 혼인은 남녀 결합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의식이었다. 8·15 해방 전후하여 예식장에서 하는 신식혼이 급격히 늘어나 현재는 대부분 신식으로 혼인을 한다.

혼례식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행하는 민속행위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강원도 지역에서 혼례에서 불씨가 남긴 재를 뿌리거나 바르는 행위 자체도 곧 불을 의미한다. 신랑이 혼례를 치르기 위해 신부 집에 도착하면 신부 집 친지들은 신랑을 향해 재를 뿌려 신랑에게 붙어 온 귀신을 쫓는다. 반대로 신부 가마가 신랑 집 대문을 지날 때도 재를 뿌린다. 혼인한 새색시가 시집으로 처음 오는 날 문 앞에 화투불을 피워놓고 이를 뛰어넘게 하여 흑시 물어올지도 모르는 잡귀를 쫓았다. 혼례 때 함진아비는 얼굴에 솔 밑에 그을린 재로 얼굴을 바르고 신부 집으로 간다. 그러면 잡귀가 근접하지 않는다고 한다. 재는 음인 귀신을 쫓아내는 정화력을 가진 것이다.

혼례 때 들고 가는 청사초롱과 절기 때 걸어두는 등도 불이자 빛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 온 집안에 불을 켜놓는다. 빛으로 잡귀를 물리치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이다. 신랑이 청사초롱에 불을 밝히고 처가로 가는 것도 축귀의 뜻이 불빛에는 생명을 지켜주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불빛은 어둠을 물리

9) 박계홍 앞의 책, 138쪽.

치고 밝음을 가져다준다. 태양송배와 함께 태양신화가 담겨 있다.

5) 출생의례와 불

아기가 태어나 금줄을 치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곳이나 버리지 않고 걷어서 문 안쪽 기둥 높은 곳에 감아 두었다가 태운다. 금줄은 원새끼를 파서 아들의 경우는 생솔가지, 숯, 붉은 고추를, 딸인 경우는 생솔가지, 숯, 종이를 끼어 놓는다. 붉은 고추는 양물로 아들을 상징하지만 붉은 고추는 양색으로 음인 악귀를 쫓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딸을 상징하는 숯의 경우 검은빛은 음색으로 음인 귀신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태를 묻는 방위를 장태방이라 한다. 서울에서는 태를 왕겨나 참숯 또는 장작불에 태워서 깨끗한 물에 띄우거나 산에 묻는다. 경기도는 삼을 찌는 날 잿불에 바짝 태운다. 태를 태우는 장소가 멀면 동생 터울이 길고 가까우면 짧다고 한다.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한 것이다.

6) 세시풍속과 불

설날 그믐날 행하는 풍속에 '명신태우기'가 있다. 식구들이 모여 앉아 나이 수만큼 마디를 맺은 실을 길게 늘어뜨린 뒤 3분의 1쯤 타 올라가면 초분, 중간은 중분, 마지막까지 타면 종분이라 한다. 실이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초분 초분, 중분 중분, 종분 종분'을 주문처럼 외운다. 종분까지 타면 명대로 장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도중에 꺼지면 액운이 온다고 여겨 각별히 조심을 했다.

전라도 지방에서는 대나무 매듭을 태워 폭죽소리같이 '톡톡' 소리가 나도록 했다. 이는 잡귀와 액을 쫓기 위함이며, 달집에 수숫대, 벗짚을 넣는 것은 풍요로운 생산을 위함이었다. 남자들은 온종일 거두어들인 연을 걸기도 하고, 아낙들은 소원을 적은 종이나 입고 있는 새옷의 동정을 떼어 달집을 태우면서 자신의 액이 소멸되기를 기원했다. 불꽃이 환하게 피어오르면 풍물을 신나게 울리며 한바탕 어 울려 춤과 환성을 울리며 뛰어 논다. 달집이 타는 불에 콩을 구워 먹기도 했다. 한꺼번에 불이 잘 타오르면 풍년이 들고, 타다가 꺼지면 흉년이 든다는 속설이 전해졌으며 달집이 타서 넘어질 때 그 넘어지는 방향에 따라 그 해의 풍·흉을 점쳤다. 대보름의 만월을 바라보며 풍농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점풍(占豊)의 의미를 지녔다.

정월대보름이면 신안군 안좌면 반월과 장산은 마을끼리 불싸움을 한다. 반월에서는 주로 생솔, 장작 등을 태우기 때문에 불꽃이 오래간다. 온 동네에 나무란 나무는 다 가져다 불을 피워버린다. 돼지 밥통, 소 구시, 심지어 주걱이나 나무 밥그릇까지도 가져다 태워버린다. 아침이 되면 부녀자들은 자기 집 중요한 나무를 가

저다 불싸움을 했다고 숫이라도 달라고 해 타다만 숫을 퍼간다고 한다. 불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한 해 농사가 잘된다고 하여 기를 쓰고 이기려 한 것이다.

절기나 혼례 때에는 대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불을 넘었다. 이 행위는 신성한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몸에 붙은 잡귀와 부정을 불로 소멸한다는 의미에서 행한다. 정월대보름 날 마당에 불을 피워놓고 아이들이 자기 나이 수만큼 그 불을 넘는데 그러면 몸 안에 붙은 잡귀가 도망가 한 해 동안 아무 탈 없이 지낸다고 믿었다. 그 불을 '땃불', '액막이불'이라 한다.

나오는 말

불로 보는 역사문화, 그리고 한국인의 화라는 강좌에서 불과 민속신앙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문명발달과 세상변화로 가장 많은 변화가 생긴 부분이다. 한 민족의 순수한 문화란 없다. 모든 문화는 타문화와 접촉하며 발전한다. 즉 전파와 이식을 통해 습합되고 스스로 풍부해지면서 형성되고 발전해 나간다. 그리고 때로는 소멸해 간다. 불과 관련된 민속문화 또한 외에는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거 형태는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전통 가옥에서 모셔 온 불신인 조왕신은 좌정할 곳을 잃어버렸다. 혼인의례에서 행해졌던 불과 관련 의례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출생의례에서 금줄은 사라진지 오래다. 질병과 관련해서는 의학의 발달로 미신으로 취급한다. 세시풍속에서 불과 관련된 쥐불놀이나 달집태우기는 의식은 사라지고 축제 형태로만 변화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새로운 불신화가 진행 중이다.

태극기와 촛불 신화다. 이 두 가지 신화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일까?

태극기는 지키는 것을, 촛불은 에너지 확산으로 변화의 열망을 표상하고 있는 중이다.

엄수경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대학에서 문예창작과 민속학을 전공했다.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원, 목요사진 오색얼음종이 회원, 동화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코 없는 벅수』로 어린이와 어른들을 위한 창작판소리 동화로 광주전남 스토리랩에서 우수 스토리로 선정되어 작품상을 수상했다. 현재 국악방송에서 마을노래 답사기를 진행하고 있다.

제4강좌 :

촛불과 광장 민주주의 그리고 권력

박 해 광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촛불과 민주주의

박해광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 촛불의 의미와 상징성

촛불의 상징성

- 죽음, 희생, 부활, 어둠 속의 빛
- 자신을 태우고 희생함으로써 빛과 밝음을 만들어 낸다.
- ‘우리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가슴에서 더 뜨거운 불꽃을 꺼내 주십시오.’



촛불 집회의 전개과정



• 촛불집회의 시작

- 2002년 6월 의정부에서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는 사건이 발생
- 오마이뉴스의 한 시민기자가 두 여중생을 추모하는 촛불집회 개최를 제안
-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한 광범위한 전파
- 2002년 11월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으로 촛불 집회 개최
- 가해자 처벌, SOFA 개정,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
- 비폭력 평화시위, '촛불을 든 시민들'이라는 상징성 정착

촛불 집회의 확산



• 세대적 확산

- 2002, 2004년의 촛불 집회는 젊은 세대가 집회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임
- 하지만 2008년을 거치면서 집회의 참여층은 다양한 세대와 집단을 포괄하면서 광범위해짐. 106일 동안 550만 이상 시민 참여
- 청소년, 청년, 노동자, 유모차, 시민, 노년층 등
- 광우병 수입소, 영어 몰입교육, 대운하 등의 정책들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자극

촛불 집회의 심화



• 촛불의 진화와 정치적 급진화

- 2016~17년 촛불집회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거의 모든 세대와 집단이 촛불을 밝힘.
- 20회에 걸쳐 1,600만명 참여
- '박근혜 탄핵' 과 '구속' 을 주장, 파면을 관철시킴
- 유례가 없는 시민운동의 성과

• 전국적 확산

- 서울, 수도권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촛불 집회 확산

촛불과 두개의 정치

촛불 운동을 통해 시민을 주체로 하는 2개의 정치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

• 1. 제도화된 절차적 민주주의와 권위적 지배

- 대중의 투표 이외의 정치참여 통로 부재
- 헌정주의
- 무력한 대중, 탈정치화
- 정치에 대한 관심 부재
- 취약한 정당성 기반과 과도한 국가 권력
- 제도화된 반대 세력의 부재로 인해 가능한 권력 질서 유지
- 운동세력, 시민세력의 역량 부족

촛불과 두개의 정치

• 2. 촛불과 시민적 참여 정치

- 절차적 민주주의, 대표성과 정당성에 대한 의문
- 제도정치의 무능력에 도전하는 시민
- 참여주의, 하지만 그 이상
- 분산적, 개별적 주체들의 운동
- 대중들의 욕망, 감성적 저항

촛불 집회의 특징

• 새로운 정치 주체의 출현

- 개인들
- 전자 공중, 유연자발집단, 완전히 비동질적인 운동 주체

• 새로운 소통의 통로와 공론장

- 온라인을 통한 정치적 의제 설정
- 인터넷 공론장이 서로의 참여와 학습을 위한 민주주의 체험으로 작용
- 시민 개인의 화용적이고 정보적인 수행능력 향상

- 정보를 수집, 분류, 유통하는 능력
- 정보를 분석, 해석, 평가하는 능력
- 정보를 사회적 지식과 담론으로 변형시키는 능력
- 다양한 지식과 담론 사이에서 논쟁하고 논증하는 능력
-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식과 담론을 집단적으로 창출하고 진화시키는 능력
- 타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능력

촛불 집회의 특징

- 동원이 아닌 자발적 참여
 - 촛불이 기존 사회운동과 다른 것은, 조직적 동원이 아니라 평범한 대중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것
 - 폭력이나 적극적 의사표현 보다는 평화적, 문화적 표출 선호
- 문화제로서의 촛불집회
 - 즐거운 향의, 축제형 시민문화운동
 - 만민공동회 형식의 자유발언
 - flash mob 형태의 시위
- 즉자성의 정치
 - 광범위한 상식과의 연결성
 - 명확한 찬성/반대, 옳고 그름의 이분법
 - 생존정치적 의제: 수입, 건강, 파면, 국정농단

촛불 집회의 특징

- 촛불과 집단지성
 - 어디에나 분포하고 지속적으로 가치부여되며,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역량의 실제적 동원에 이르는 지성
 - ‘대단위의 실시간 직접민주주의’ 지향
 - 권력 Vs. 서로가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역능의 추구
 - 2008년, 2016년 촛불이 긴 시간을 끌 수 있었던 것은 서로의 참여와 그 의지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집단적 양상이 있었기 때문
 - 소통에 기초해서 서로의 욕구, 상상력을 학습, 교류, 발전시키는 경험

촛불 집회와 정치체제

- 87년체제의 한계와 촛불
 -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 대통령 직선제로 통합된 민주주의 기획의 한계
 - 촛불과 권력구조개편의 연관성
- 1997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와 촛불
 - ‘헬조선’으로 집약되는 무한경쟁 시스템
 - 심각한 탈정치화, 정치적 무력감
- 박정희 체제와 촛불
 - 2016년의 촛불은 박정희 체제의 유산과 정면으로 조우
 - 합리성 Vs. 비합리성, 진보 Vs. 퇴행
 - 태극기라는 또다른 대중적 기호를 창출
 - 정치적 농성전

촛불 집회와 제도 정치

- 낡은 이데올로기적 패러다임
 - 2008, 2016년의 촛불에 대해 기성 권력은 여전히 괴담, 종북, 좌경(좌빨) 등의 낡은 색깔론과 이데올로기로 대응함.
 - ‘일반시민’에 가해지는 낡은 ‘낙인’은 시민적 분노를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용.
- 좌절과 ‘정치참여’ 욕구의 분출
 - 제도적 정치는 기대의 충족 보다는 좌절만을 제공
 - 2008: 비도덕적이어도 경제전문가 → 생명의 위협
 - 2016: 박정희의 딸, 정치 전문가 → 국정농단

촛불 집회와 제도정치

- 제도정치의 실패, 헌정주의의 한계
 - 헌정주의의 위기는 참여 경향을 강화
 - 촛불은 그간의 학습된 민주주의 효과
 - 대변되지 못하는 정치적 의지를 촛불로 표현
-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제도화
 - 시민운동 전문화와 안정화의 한계
 - 전문화, 제도화, 시민=소비자
 - 개인의 참여 열망을 담는 통로로서의 한계

촛불은 어디로 갈 것인가

- 이미지와 대중의 기호
 - 옳고 그름,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정의와 불의 등이
분법에 기초한 정치적 사고
 - 이분법에 기초한 착시 현상: 과도한 이분법과 음모론
- 시민적 자치와 자결에 대한 관념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
온다
 - 헌정질서 파괴와 탄핵
 - 이 헌정주의는 확고하게 확립된 것인가?

촛불은 어디로 갈 것인가

• 촛불운동의 승화가능성?

- 보다 복잡한 정치적 의제에 대한 관심으로 상승할 것인가?
- 탈정치화, 대중적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 촛불을 든 이는 다름 아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던 사람들

박해광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 박사

현) 비판사회학회 이사, 한국문화사회학회 운영위원, 한국아시아학회 이사

[저서]

2012 『지역문화와 문화정치』, 전남대학교 출판부 (공저)

2012 『산업사회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공저)

2011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3』, 심미안 (공저)

2011 『병원인문학』, 전남대학교 출판부 (공저)

2010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2』, 심미안 (공저)

2008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1』, 심미안 (공저)

2008 『과학기술과 사회: 기술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 전남대학교출판부 (공저)

2006 『정보사회와 문화: 신화와 현실』,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6 『1960-70년대 노동자의 작업장 문화와 정체성』, 한울아카데미 (공저)

2006 『1960-70년대 한국 노동자의 계급문화와 정체성』, 한울아카데미 (공저)

2005 『1960-70년대 노동자의 생활세계와 정체성』, 한울아카데미 (공저)

2003 『계급, 문화, 언어: 기업공간에서의 의미의 정치』, 한울 아카데미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주 소 :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삼호별관 2층

전 화 : 062-234-2727 팩 스 : 062-234-2728

홈페이지 : www.rcef.or.kr 이메일 : r-cultural@hanmail.net

2017년도 제7기 역사문화 시민대학 자료집 <비매품>

지은이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펴낸이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백수인

펴낸일 : 2017년 3월 29일

인 쇄 : 밝은인쇄복사 062-524-7671